

'97 양봉산업현황(연감) ①

<편집자주> 본고는 '97축산연감-양봉편에 실기 위해 준비한 내용으로서 1997년의 양봉산업 동향을 총정리하였다. 우리 양봉사에서 1997년은 천연꿀 전면 수입개방 원년으로 기록된 해이기도하지만 연초부터 내내 시장경기의 불황이 지속된데 이어 연말에는 외환위기-IMF관리체제의 국가적인 경제난 위기를 맞이하여 양봉농가의 시련은 더욱 컸다. 이 인고의 고비를 참고 견디어 나가는 슬기를 모으기 위해서 지난 한해 우리업계 주변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아주기 바라는 뜻에서 본 내용을 4회에 나눠 소개한다. 여기 실린 생산-유통관계 자료들은 본협회가 당국에 정책자료로 제시하면서 작성된 내용이다.

1. 개 황

1997년의 양봉업계는 연초부터 연말에 불어닥친 IMF외환 위기에 못지 않은 흉작과 불황으로 고통으로 지속된 한 해였다.

생산에 있어서는 '95-'96 두해 연속 풍작을 이루다가 '97년 5월 아카시아꿀 생산기, 즉 아카시아 개화기 한달 내내 폭풍우를 동반한 악천후를 만나 벌꿀 연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아카시아꿀 작황이 십년래 처음 당하는 흉작을 면치 못했다. 두 번째로는 연초부터 계속된 시장경제의 불황으로 양봉산물 소비가 바닥세를 면치 못해오다가 연말에 가서는 결국 IMF 외환위기까지 불어닥쳐 흉작의 기근이 가중되었다. 세 번째로는 '97년 7월부터 천연꿀 수입 전면 개방으로 양봉농가 입장에서 보면 가격경쟁의 두려움과 충격을 안겨줬다.

이런 상황속에서 '96년부터 벌꿀 대량유통에 길이 열렸다고 큰 기대를 걸었던 아카시아꿀 감미제품 '김삿갓' 고급소주 인기가 한때 반짝 경기에 그친 것이 양봉업계서는 못내 아쉽고 실망이 컸다. 이 제품은 회석식 소주의 첨가감미료 '스테비오사이드' 대체용으로 아카시아꿀을 사용한 고급소주로 대 히트를 치더니 소주업체간 선두다툼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해 더 이상 빛을

못보고 만 것이다.

원래 벌꿀을 비롯한 로얄제리·화분등 양봉산물의 소비성향은 기호식품 군에 속한 때문에 시장경기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연초부터 불경기를 탄 양봉산물의 소비둔화 현상은 호전될 기미가 없는 채 천연꿀 수입마저 전면 개방됐으니 양봉농가의 자금사정의 어려움은 고사하고 가격경쟁력 상실감에 사로잡힌 일부 양봉농가들은 전업 아니면 경영전략을 재정비하는 등 2-3중의 고통을 안겨준 해였다.

그러나 '97 연말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IMF 한파가 몰아쳤는데 양봉업계는 이런 와중에 천만 대행으로 생각할 만큼 안도감을 가질 여유가 생겼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월동사료 급이가 모두 끝난 시기, 수요가 멈춘 단계였기 때문에 IMF한파 위기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이 시기가 봄-가을 성수기에 닥쳤더라면 다른 농수축산 부문처럼 사료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살처분등 폐농위기와 같은 현상이 빚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자위하며 '97년 한해를 마무리한 양봉업계 상황이다.

이 외환위기 극복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될 시기 전망은 앞으로 3년이라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아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 문

<표 1> 천연꿀(0409.00.0000) 연도별 양허관세율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시장접근 물량 이내	세율(%)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물량(톤)	250	268.9	287.8	306.7	325.6	344.5	363.3	382.2	401.1	420
시장접근 물량 초과	증가(%)	267.3	264.6	261.9	259.2	256.5	253.8	251.1	248.4	245.7	243.0
	증량(원/kg)	2,050	2,030	2,009	1,988	1,968	1,947	1,926	1,905	1,885	1,864
비 고		증가세/증량세 양자중 고액(율) 적용, <수입=원산지표시품목/남북교역제한품목, 은행=폐기물예치금및 부담금>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중 개정령,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4호 [별표 1의 다] 단순양허한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설정품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및 제7조관련)

<표 2> 인조꿀(1702.90.1000) 연도별 양허관세율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시장접근 물량 이내	세율(%)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물량(톤)	6	6	6	6	6	6	6	6	6	6
시장접근 물량 초과	세율(%)	267.3	264.6	261.9	259.2	256.5	253.8	251.1	248.4	245.7	243.0

제를 심각히 재고할 때가 되었다. 양봉경영비 중 무거운 부담이 되는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는 길, 더 나아가서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양봉산업의 양산체제를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은 밀원수(식물) 증식 그것 하나 뿐이다. IMF한파 위기에서 더욱 절실해진 문제이다.

2. 천연꿀 수입개방 영향분석과 대책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다행인 것은 천연꿀 수입개방에서 양허관세가 고율로 적용된 때문에 처음엔 많은 양봉가들이 두렵게 생각하던 외국산 꿀이 한 건도 대량 수입된 것이 없었다. 이보다 두 해 전인 '95년부터 이행된 천연꿀 최소시장접근물량 수입(MMA)이 국영무역으로 수입하여 국내 식품가공 수요업체에 공매하고 있는데, 앞서 지적한 대로 우리 국내 소비시장의 소비경향과 불황을 탄 원인 등으로 생각과 같이 판매되지 못해 매년 해를 넘겨가며 잔량 소진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서 결국 '97. 5월 농림부 당국은 천연꿀 M MA 수입판매 관리를 국영무역에서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바꿀 준비를 서둘러 한국양봉협회의 끈질긴 건의로 한 해 더('97년분) 국영무역관리 체제로 지속키로 잠정 유보했다. 물론 이 천연꿀 M MA 판매처리에 관하여 양봉협회와 양봉축협등 생산자 단체에서 판매소진에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는 전제하에서 성사된 것이다.

2-1. 천연꿀 시장개방 및 MMA쿼타물량 처리

현재의 국영무역 관리에서 '수입권공매' 체제로 바뀌었다면 특정한 기업체가 수입판매권을 틀어쥐어 우리 양봉업체와는 상관없이 벌꿀 시장을 뒤흔들 소지가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수입권공매 입찰권 행사로 국내 시장에 천연꿀 판매유통은 '95 첫 해분 미국 크로버꿀 공매물량 대부분을 사간 농협자회사 축산무역이 아직까지도 이를 다 팔지 못하고 재고로 쌓여있는

<표 3> '96 천연꿀 MMA 수입관리내역

품명(HSK)	'97시장접근		고율관세 (SSG)	개방년도	개 방 내 역
	세율	물량			
천연꿀 0409-00-000 0	20%	287.8 톤	261.9% 도 는 2,009원/kg	'97. 7. 1	MMA물량은 20%의 관세로 2004년까지 매년 수입 량을 증가 ('97) 287.8 → (2004) 420톤

△MMA에 대한 수입은 외화획득용제품(관광용품센타)과 국영무역(축협중앙회) 형태로 수입 ※'97 MMA물량 배정 : (내수용) 247.8톤, (외화획득용) 40톤

<표 4> '96 천연꿀 MMA물량 수입입찰가격 현황
· 입찰일 : 1996. 7. 19 · 입찰가격(C&F 기준)

응찰국가	중 국	미 국	캐나다	러시아	미 국	미 국
kg당 단가	1.759\$ (1,430원)	2.62\$ (2,130원)	2.773\$ (2,254원)	3.0\$ (2,439원)	3.274\$ (2,661원)	3.617\$ (2,940원)
밀원종류	유 채	클로버	알팔파, 헤바리기	-	클로버	클로버

○ 환율 : 1\$ = 813원 적용(1997년 7월20일 기준)

<표 5> MMA천연꿀 수입판매 이익금 징수현황

(단위: 백만원)

	수입량(국영무역)	판매가격	제비용	납입이익금
'95	250(210)톤	633	390	243
'96	262(226)톤	445	428	17

'96년은 추정금액이며, '95년 물량은 4차공매과정 끝에 잔량 191톤 축협자회사인 축산무역에서 인수

것과 같이, '97년도 분 247.8톤(287.8톤-외화획득용 40톤) 처리 역시 막상 실시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보다 원활한 국내 시판 보장도 없다. 벌꿀은 육고기나 기타 농축산물과는 달리 수요전망이 호될 뿐더러 양봉전문가 손에 의해 다뤄져야 원활한 처리가 가능하다.<표3 참조>

결국 국내 식품가공업체의 가공용 원자재용이건 소분판매용이건 간에 판매부진-국고낭비라는 이유로 후속 조치로 '실수요자추천제' 실시로 빚장을 열어 놓는다면 무역업체 중심으로 벌꿀 유통이 잠식될 것이다. 국영무역-수입권공매 제도 실시 다음단계인 제한 없는 실수요자추천제 실시

일 경우 국내 수요한계로 인해 WTO에 대해 MMA 쿼터물량처리가 역부족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배정물량 소화미달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이점은 있다. 마냥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이는 실정인데 의무적으로

쿼터물량을 소화해 내는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97. 5월 농림부는 천연꿀 시장접근물량 수입관리요령을 개정하기 앞서 한국양봉협회에 이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해 왔으며, 가능한 한 업계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방향으로 여러 방안을 모

색해 봤지만 어쩔 도리 없이 양봉업계 수용태세 미비로 MMA물량처리가 어렵다 해서 불구경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적어도 양봉조합 또는 판매업계에서 국내외적인 무역환경에 눈을 돌려 컨소시엄을 형성해서라도 수입권공매에 적극 참가해 우리 양봉업계 자구적으로 소화해 내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책이다.

2-2. 남북교역 양봉산물의 국내반입 문제

수입자유화 속에서 또 다른 보호장치로는 '97. 6월 통일원에서는 북한산 천연꿀(HSK 0409-00-

<표6>북한산로얄제리 반입실적(통관기준)

연도별	물량(톤)	금액(천불)	금액/물량
'89~'93	4	275	68.75
'94	14	1,104	78.86
'95	1.5	196	130.67
'96.1~5	18	1,960	108.89
계	38	3,535	

▶'95년 3월5일 이전까지 북한산로얄제리는 반입자동승인품목으로 고시돼 있었는데 통일원은 '93년10월12일 3톤, '94년3월30일 10톤, '94년4월1일 5톤 등 국내 반입을 승인한 바 있다.

0000)과 로얄제리(HSK 0410-00-3000), 인조꿀(HSK 1702-90-1000), 벌꿀조제품(HSK 2106-90-9091) 등 4제품의 양봉산물을 반입제한 품목으로 고시함으로써 관세 한푼 물지 않고 국내가격의 1/3 이하 가격대로 물밀 듯이 반입될 경로를 미리 차단시켜 놓은 것이다. 이는 '89년 남북간 농산물교역이 시작된 후 '95년 5월까지 북한산로얄제리가 국내로 반입된 물량은 37.5톤에 3백53만5천 달러 어치나 된다.<표 6참조>

현재 우리 국내서 생산되는 로얄제리의 연간 생산량은 20톤 내외 정도인 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물량이며, 우리 양봉농가는 가격경쟁에서 밀려나 아예 생산을 단념하다시피 한 품목이다. 이런 전례를 거울로 삼아 천연꿀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빚어진다면 우리 양봉농가들은 두손들고 마는 폐농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한국양봉협회가 최대의 사안으로 취급, 대처해 온 성과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한산 로얄제리가 물밀 듯이 반입된 뒤 배경을 들여다본다면, 현재 국내서 유통되고 있는 생로얄제리는 대부분 중국산인데 품질 격차 또는 소비자들의 중국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피해하려고,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하여 국산 로얄제리와 대등한 가격으로 시판할 수 있다는 상흔 때문이었다. 이러한 수입업자들의 농

간이 결국은 '97년 1월 '코네스무역'이 중국·러시아산 농산물 400억원어치나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하다 발각되어 구속되었다. 이중에 중국산 로얄제리 27톤(1백13억원)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그 동안 양봉업계서 잔뜩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당하고만 있던 '북한산 로얄제리' 반입 작태가 모두 조작된 허위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국영무역 수입관리등 두 가지 보호장벽이 있다면 북한산 양봉산물 반입경로를 차단시키지 못한다면 앞문 잠그고 뒷문 열어놓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양봉협회의 노력으로 이 보호장치를 추가로 마련함으로써 '97년의 벌꿀생산 흥작, 천연꿀 수입개방 여파, 시장경기 불황 및 IMF 경제위기 국면으로 줄달음친 어려운 상황 속에 그나마 우리 양봉업계 위기 모면을 가능케 한 파수꾼 역할을 특특히 한 셈이다.

3. 양봉농가 및 꿀벌사육현황

3-1. 양봉경영형태 변화

9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꿀벌사육 군수와 양봉농가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대표적인 양봉대국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호주 등은 물론이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량종 꿀벌 사육상황이 90년대 초반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4년부터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개량종 양봉농가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개량종 꿀벌사육농가 수가 절정을 이뤘던 1988년에 27,974호의 양봉농가에서 개량종 꿀벌 449,530군을 키워 1가구당 평균사육규모는 16군에 불과했는데, 1997년에는 18,083호의 양봉농가에서 706,068군을 키워 1가구당 평균 39군으로 늘어 전업양봉 신장율은 무려 143%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개량종 양봉농가 수는 줄고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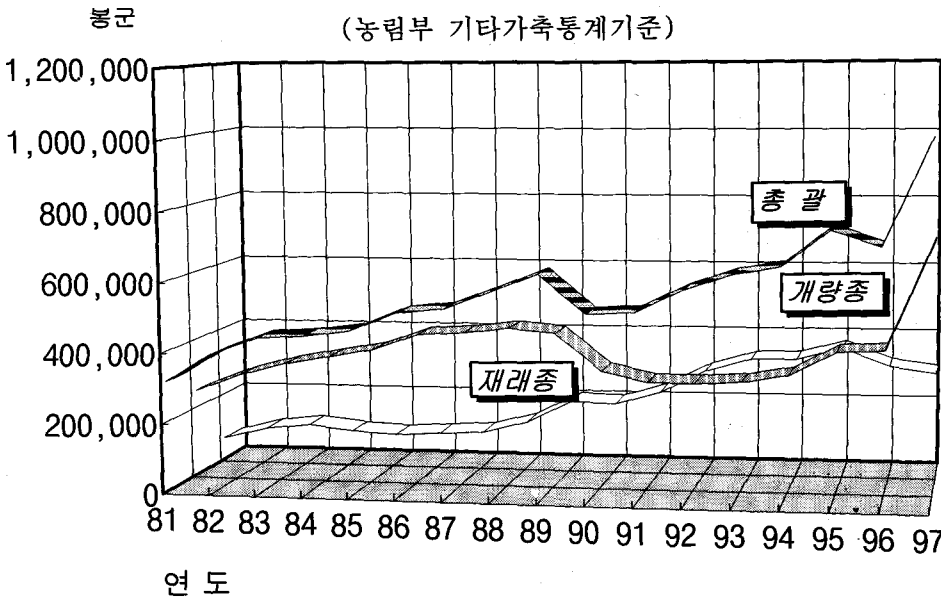
<표 7> 양봉농가 및 꿀벌사육 증감추세

	종별 가구수 및 군수					
	계		재래종		개량종	
	호수	군수	호수	군수	호수	군수
'85	51,479	467,062		87,449		379,613
'86	52,667	520,962		94,729		426,233
'87	48,961	534,391		100,957		433,434
'88	49,030	584,443	21,056	134,913	27,974	449,530
'89	52,556	636,094	25,117	199,847	27,438	436,247
'90	45,382	526,603	23,476	195,495	21,906	331,108
'91	42,676	532,826	23,898	232,874	18,778	299,952
'92	43,768	590,512	26,965	297,269	16,803	299,243
'93	43,598	640,311	27,068	334,677	15,730	305,634
'94	43,325	662,678	28,490	336,207	14,835	326,471
'95	43,258	764,243	27,781	369,825	15,477	394,418
'96	39,678	719,224	24,900	319,460	14,778	399,764
'97	41,399	1,005,919	23,316	299,851	18,083	706,068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꿀벌과 양봉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나라마다 사정이 약간씩 다르긴 하나 대체적으로 농약의 남용살포, 자연환경 오염 등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양봉협회연맹(APIBONDIA)·아시아양봉연구협회(AAA) 등의 양봉학술발표회 때마다 “꿀벌 사육과 환경친화의 관계, 환경변화 측정에 그 척도가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꿀벌과 양봉농가 수가 감소함에 따라 벌꿀가격 역시 세계 각국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5년 9월 파운드당 0.60달러이던 것이 1996년 9월 현재 0.95달러로 37%나

그림으로 본 꿀벌통계 17년

(농림부 기타가축통계기준)



급등했다. 봉군당 세계 최고의 단위생산량('94년 군당 평균 65.2kg)을 보이는 캐나다에서도 1.25달러/CD까지 상승하여 10년 사이에 무려 3배나 오른 셈이다. 세계 최대의 양봉국가로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에선 '91년에 754.1만 군을 정점으로 그 후로는 계속 하향세를 보여 '96년엔 620만 군(추정치)까지 줄었다. 1,000만 군을 목표로

대신 사양규모를 늘려나가는 전업양봉 경영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래종도 마찬가지여서 1988년에 가구당 6.4군이던 것이 1997년에는 12.9군으로 늘었으나 한해 전인 96년의 12.8군에 비하면 변화가 없는 편이다.

질주하던 중국의 양봉은 750만 대에서 곤두박질하게 된 것은 분명 이변이다. 그래서 벌꿀가격이 '91년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급등했지만 여전히 세계시장에서 벌꿀가격이 가장 값싼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표4 참조>

다음호에 계속